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징역형

피해자 직접 만나 받은 현금 4억 2000만원 중국 총책에 전달 혐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3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홍모(29)씨와 이모(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3억523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득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에게 각 400만원씩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씨 등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열흘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을 전북, 광주, 대전, 서울 등에서 직접 만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A씨 등 6명으로부터 4억 2000만원을 건네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보이스피싱 총책은 A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어 이를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건네주면 현금코드를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현금 수거책 홍씨 등에게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현금 수거책 홍씨 등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때도 실제 검사처럼 보이기 위해 검정 바지와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가짜 금융위원회 서류를 준비해 제시하기도 했다.

홍씨 등은 '고액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 위조서류(금감원발행 현금보관증), 정장 등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조직원과 주로 SNS로 연락하며 전국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서울에 있는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피해금액의 3~4%를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 근처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이동경로를 추적, 기지국 통신수사 와 공조수사 등을 통해 주거지에서 잠복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 한옥마을 상수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시, 누수감지 센서 설치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상수도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한옥마을 지구 상수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누수관리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 '상수도 누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누수 다발지역인 한옥마을에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들여 누수감지 센서를 설치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세대별 계량기 옆에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누수 감지 센서를 설치하면 실시간 원격 인터넷망을 통해 누수 감지 데이터가 전송된다. 이 데이터는 전자 지도에 누수지점으로 표기되며, 누수 복구 공사가 실시되는 등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누수의 장기화를 차단해 누수량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상수도 누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해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통영시), 충남 계룡시,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호범 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장은 "한옥마을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경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노후관 교체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체계적인 누수 지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소한의 누수복구 작업을 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모 및 안정적이고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티브로드 해고 근로자들 연좌 농성

3일 전주시 티브로드 사옥 앞에서 최근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근로자들은 사측의 고용승계 보장과 정상적인 업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완산경찰, 탈북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지난 2일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신학기를 맞는 탈북 가정 9세대를 초청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탈북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전담경찰관을 강사로 초빙해 자녀의 첫 입학을 맞이한 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피해예방 대책, 피해사건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이노영 기자

장독 훔친 50대 주부 '덜미'

완산경찰서는 3일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인 장독을 훔친 혐의(절도)로 임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한 아파트 경비실 앞 에 놓인 장독(30만원 상당)을 훔쳐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노영기자

노인 상대 건강식품 속여 팔아

노인들을 상대로 약효를 과장한 허위광고로 57억여원의 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박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노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건지분관, 인문학 강좌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건지분관은 '2016 주제가 있는 인문학 강좌'를 오는 15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일반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그리스로마신화와 문화 예술 산책' 이라는 주제로 뮈토스 문화연구원장인 오남석 강사가 신화, 미술, 음악 등 평소 접하기 힘든 분야를 다각적으로 다뤄 미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인류 발전의 문명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양된 신화적 관점을 통해서 신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관련된 콘텐츠 개발과 활용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현대사회의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 창조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에서 시민들이 신화의 상징과 의미 분석을 통해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수준을 높여 더욱 품격있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립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접수는 선착순으로 도서관 사무실 및 자료실로 방문 또는 전화접수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 교재비는 별도다. /김영재 기자

새만금환경청,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31일까지 특별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옥)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도내 사업장 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4주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총 100개소 중 미점검 사업장 및 중복 위반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적법 처리여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며,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장은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새만금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는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중기 육성기금 80억 융자

전주시가 경기불황으로 경영난 및 수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중소기업 70억, 소상공인 10억)을 경기침체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운용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융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실의에 빠진 업체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지원되며, 융자기간은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으로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3.5%, 여성기업 4%,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이다.

지원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에서는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융자(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5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적극적인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